

## 국제불교학교, 東大 학과 전환 외국인 포교 인재 불사 활성화

조계종 · 동국대 경주캠, '국제불교문화사업학과' 개설 협약

용인 화운사에 소재했던 조계종 국제불교학교가 동국대 경주캠퍼스 불교대학원 내 학과로 전환된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과 동국대 경주캠퍼스(총장 이계영)는 구랍 31일 협약을 맺고 학과 개설과 지원을 약속했다.

이번에 맺은 협약은 정부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 제8조를 근거로 하고 있는 '계약학과'다. 법에 따르면 "산업교육기관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과의 계약에 의해 권역별, 산업교육기관별로 직업교육훈련 과정 또는 학과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계종은 동국대 경주캠퍼스 불교문화대학원 내에 '국제불교문화사업학과'를 위탁 개설·운영하게 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학기는 총 5학기제로 정원은 학년당 10명이다. '국제불교문화사업학과'에 입학한 스님들은 경주캠퍼

스 수행관인 석림원과 사라림에서 생활하게 되며 4학기 과정에는 3주간의 해외연수 프로그램도 제공된다. 또한 등록금 일체도 종단에서 부담하게 된다.

**비구니 대상이던 국제불교학과로 전환되며 비구 포함 5학기제 수료시 석사 취득 등록금 전액 종단이 지원 졸업 후 템플스테이 법사 등 해외포교 인력으로 채용돼**

학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종단, 학교가 추천하는 위원 6명이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학사 운영에 참여한다. 운영위원회는 △학생 정원 △학생 선발 △교과 과정 △학칙 규정 △

운영 전반 등의 사항을 협의하게 된다. 운영위 위원장은 학교가 추천하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했다.

교육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동국대에 동일하지만 국제불교학교에서 이뤄진 학사 커리큘럼도 참고한다는 계획이다. 강사는 동국대 교수와 원어인 강사가 직접 강의한다.

교육원 관계자는 "국제불교문화사업학과는 영어로 불교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불교를 영어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교육에 목적을 두고 있다"면서 "동국대와 더 논의를 해야겠지만 교육 프로그램들도 실생활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실용성에 바탕을 두고 만들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행관에서의 대중생활도 국제불교문화사업학과 재학 스님들은 24시간 영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조계종 국제불교학교가 동국대

석사 과정 학과로 정식 전환되면서 해외 포교 전문 승가 인력 양성에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용인 화운사의 국제불교학교는 비구니 스님 전문 교육기관이었지만, 이번 학과 전환으로 비구 스님으로까지 교육 기회가 확대됐다. 또한 종단은 전문적인 재원이 투입된 만큼 졸업생들을 해외·재한 외국인 포교 인력으로 채용·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교육원 관계자는 "계약학과 특성 상 의무적으로 산업체는 졸업생 중 일부 인원을 정식으로 채용하도록 규정돼 있다"이라며 "조계종의 경우 관광문화사업 진흥을 목적으로 템플스테이 지도법사로 채용하거나 해외 포교 전문 인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려 한다"고 말했다.

한편, 동국대 경주캠퍼스의 '국제불교문화사업학과'는 오는 1월 초 모집 공고가 발표되며, 2월 전형을 거쳐 학생을 모집한 후 3월부터 정식적인 학사 운영에 들어간다.

신성민 기자 molp79@hyunbul.com



스님들이 법전 대종사 다비식에서 열반의 세계로 향하는 마지막 모습을 거화 의식으로 장엄하고 있다. 다비장에 모인 불자들은 "큰 스님 불 들어갑니다"는 외침에 모두 눈물을 흘렸다.

## “남기신 지혜는 우리사회 큰 희망”

조계종 11~12대 종정 법전 대종사 영결식 구랍 27일 해인사에서 엄수

조계종 11·12대 종정을 지낸 도림당(道林堂) 법전(法傳) 대종사의 영결식과 다비식이 구랍 27일 해인총림 합천 해인사에서 종단장으로 엄수됐다.

이날 영결식은 추모의 명종 5타를 시작으로 전국 교구본사에서 동시에 시작됐으며 해인사 대웅전 앞 영결식장에는 5000여 대종이 운집했다. 미처 자리를 잡지 못한 대종들은 영결식장 곳곳에서 스님의 마지막 모습을 가슴에 새겼다. 영결식에 앞서 법전 대종사의 생전 모습을 담은 영상에서는 '수행 남자는 공부를 게을리해서는 안된다'는 스님의 가르침이 전해졌다.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은 영결식에서 추모법문으로 "대종사께서는 일생일로(一生一路)의 삶으로 결사에 임한 뒤로는 일생토록 좌복을 여의지 않으신 눈 푸른 남자의 본분표상(本分表象)이었다"며 스님의 수행자로서의 모습을 기렸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도 추모사를 통해 "승려의 모든 위상은 수행에서 나온다"고 경책하시던 그 말씀을 이제는 어디서 들어야 할까. 스님을 여인 슬픔은 수미산보다 크고 향수해보다 깊다"며 "하루 속히 사바로 돌아오셔서 큰스님이 받으셨던 그 파참제(罷參齋)를 저희에게 나눠 주소서"라고 애도를 표했다.

이날 영결식에서는 원로회의 의



5000여 불자들이 운집한 영결식 모습



영결식 후 다비장까지의 이운행렬

**각계 사부대중 5천명 운집 눈 푸른 남자 본분이었던 절구통 수좌 마지막 애도**

장 밀운스님과 원로위원 세민·고산스님 등 종단 원로 스님을 비롯한 불교계 인사 외에도 정감윤 국회의원, 최정호 국회의원, 문재인·임수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절구통 수좌로 널리 알려진 수좌, 6개는 2월 2일 김천 수도암, 막해 해 전국 제방의 수좌들이 대거 참석하기도 했다.

영결식 후 대종들은 법전 대종사의 법구를 해인사 연화대로 이운했다. 1000여 장이 넘는 법장이 먼저 앞장 섰다. 인로왕법을 선두로 명정, 삼신불법, 오방불법, 불교기, 무상계, 향로, 위패, 영정, 법주, 법구, 문도, 장의위원, 비구, 비구니, 만장, 신도 순으로 이동했다. 이운행렬 좌우로는 불자들이 길게 늘어섰다. 대종이 모두 합장하고 계승을 외우며 한마음으로 법전 대종사가 남긴 불법홍포의 서원을 이를 것을 다짐했다.

영결식 후 진행된 다비식에서는 법전 대종사를 보내는 애뜻한 마음들이 모아졌다. 거화의 순간, "큰 스님 불 들어갑니다"는 외침에 연화대에 모인 대종들은 눈물을 흘렸다.

해인사 측은 다비식 이후 법전 스님 법문 담긴 작은 기념패를 참가자들에게 전달했다. 기념패에는 '안으로 망명을 이기는 공을 부지런히 하고, 밖으로 다투지 않는 덕을 펼치라'는 스님이 불자들에게 남긴 말이 새겨져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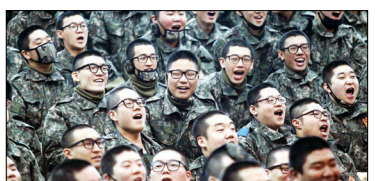
한편, 법전 대종사의 49재는 구랍 29일 해인사 초재를 시작으로 1월 5일 해인사 고불암 2재가 진행됐다. 3재와 4재, 5재는 1월 12·19·26일 대구 도림사에서, 6재는 2월 2일 김천 수도암, 막해 해 전국 제방의 수좌들이 대거 참석하기도 했다.

합천 해인사=노덕현 기자

### 1026호 INDEX

**종합** 2·3  
불교중앙박물관 유물 기증 캠페인 석전 스님 문학상 제정된다

**시방세계** 5  
국회 정각회 호국연무사 위문



**화엄만다라** 12·13  
불자 가수 김홍국 씨



### 사령

의원 면직 박재완  
면) 편집국 편집부 부장대우  
2014년 12월 19일 부

## 종교인 과세 1년 유예... 사실상 무산

기획재정부, 구랍 25일 관련 개정 시행령 발표

**개신교 반발·정당들 눈치보기  
종교인 과세 '먼나라 이야기'  
정부 "올해 국회 수정안 제출"**

올해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종교인 과세가 1년 유예됐다. 정부는 앞으로 '종교인 소득'을 신설하고 종교인이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지만 결국 또 미뤄지게 되면서 유야무야 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구랍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을 발표했다. 이번 시행령의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월 16일까지이며, 1월 중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거쳐 1월 30일에 시행된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종교인 소득을 일종의 사례금으로 보고 내년부터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 시행령에 따르면 소득 중 필요경비 80%를 제외한 20% 중 20%(전체의 4%)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고 불이행 시 가산세를 부과했지만 결국 적용을 1년 유예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개신교의 반발도 높지 못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의 새누리당 위원들은 지난해 11월 24일 종교인 간담회를 열었지만 참석한 개신교계는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불교와 가톨릭은 조세에 찬성했다.

종교인 과세는 '국민 계세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46년 동안 정부와 종교계 간 지리한 줄다리기를 해오고 있다. 70%이상의 대

수 국민들은 과세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기재부는 올해 정기 국회에 기타소득에 종교인 소득이라는 세항을 만들고 종교단체의 원천징수무효를 없애며 종교인이 자진신고·납부하는 수정안을 제출할 계획이지만 한동안 과세 추진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실제 2016년에는 총선이, 2017년에는 대선이 예정돼 있어 선거를 의식한 정치권이 종교계의 표를 의식해 무리하게 과세를 추진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불교계 시민단체 관계자는 "일부 개신교의 반대로 종교인 과세가 번번이 실패하는 것은 아직 우리 사회가 성숙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도 원칙이 있는 행정을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열두 달 마음 농사의 풍경과  
대행 스님의 법어가 함께하는

# 2015 마음 다이어리

산뜻한 연둣빛 표지로 새롭게 출시된  
2015년 다이어리에는 대행 스님의 말씀과  
박희진 작가의 그림들이 함께 실렸습니다.

내 마음의 흐름을 지켜보고 기록하며  
가꾸어 가는 공간-마음 다이어리와 함께  
하루하루 변화해 가는 '나'를 발견해 보세요.

판매처 : 현대불교 헌불샵 02)2004-8216  
구입가 : 13,000원 (3만원 미만 택배비 별도)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제품 상세보기 : 「한 그루의 숲」 검색 → 「숲속가게」 클릭

그림: 박희진